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여름과 세상의 요란함 가운데도 주의 은혜로 강건하시리라 믿으면 소식을 전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을 붙들지만(눅18장) 요즘 들려오는 전쟁, 가뭄, 홍수, 물가상승과 기상이변 등등 어려운 지구촌 소식이 많습니다. 지난 봄 한국에서 유산 문제 정리는 남아 있는 과제도 있지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담대함과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주님의 섭리와 우리 안에 있던 죄를 발견하고 제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6월 하순부터 기도하며 마음 졸였던 거주비자 연장은 이번주에 1년으로 갱신한 새 거주증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요즘은 은행잔고를 중요하게 검토한다는 소식에 주변 사역자들의 비상금을 빌리려 다니느라 1주일, 잔고증명을 받고 돌려주려 다니는데 1주일, 비자 인터뷰는 서류 검토와 지문 등록에 사람들이 많아서 거의 6시간을 더위 가운데 서서 기다리며 힘들었지만 그나마 1년 연장을 받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특별하지 않은 하루를 보내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특별한 날이기를 소원하며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2. 8. 21. 김에스더 드림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온 세계와 땅끝의 영혼들과 저에게 임하기를**
2. **A가 한국으로 대학원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행정학)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도 일부분 받고 기숙사도 제공되는 인천의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아버지가 반대할까 생각하여 얘기하지 못하여 함께 기도했는데 다행이 찬성했고, 한국대사관에서 비자 면접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8월 하순에 한국으로 가는 일정으로 준비 중입니다.**
3. **H부인 가정은 7월에 또 온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고생했고, 첫째딸의 큰 외손자 고구려가 9월에 초등학교에 입학이라 책가방 선물을 했습니다. 갓난아이 때부터 병치레가 잦은 외손자를 돌보아 온 H부인은 코로나와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영어학원과 수영학원을 보내도 선생님의 가르침에 소극적이고 말도 않는 고구려를 걱정합니다. 큰딸 부부가 진심으로 화해하여 가정이 회복되어 인성이 좋은 아이로 성장하도록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처럼(눅18:9~14)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원망하는 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만지시고 모두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알기를 기도해 주세요.**
4. **9월 초순에 A국을 1개월 일정으로 방문하고자 준비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온라인으로 소식을 나눴는데 대면으로 교제할 시간과 위로해야 할 영혼들도 만날까 합니다. M의 조카는 지난 전쟁에서 남편을 잃었고, V의 첫째 여동생은 얼마전 병으로 남편을 보내고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 실의에 잠겨 있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합니다.**
5.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여러 상황상(노동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 살고 있음) 한식 강사의 일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 연결되는 사람들과 영혼들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도록 간구합니다.**